

성비의 지역적 차이: 역대 인구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

전 기 택

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
(junkt@kwdi.re.kr)

1. 1925년 이후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
2. 1925년 이후 시도별 성비 변화 추세
3. 부록

목 차

1. 1925년 이후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	2
2. 1925년 이후 시도별 성비 변화 추세	5
3. 부록	14

표목차

〈표 1〉 1925년 이후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: 시·도	3
〈표 2〉 2005년 성비 상·하위 지역: 시·군·구	4

그림 목차

〈그림 1〉 1925년 이후 전국 성비 변화	2
〈그림 2〉 경기도와 강원도의 성비 변화	5
〈그림 3〉 충북과 충남의 성비 변화	6
〈그림 4〉 전북, 전남, 제주도의 성비 변화	7
〈그림 5〉 경북과 경남의 성비 변화	9
〈그림 6〉 서울과 부산의 성비 변화	10
〈그림 7〉 대구와 인천의 성비 변화	11
〈그림 8〉 광주, 대전, 울산의 성비 변화	12

[자료원]

통계청. KOSIS. 인구(총조사) 자료.

▣ 성비의 지역적 차이 요약 ▣

1. 1925년 이후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

- 역대 인구총조사 가운데 전국 성비가 99%대를 기록한 것은 1944년과 2005년.
- 1955년 강원도 성비 134.34%로 역대 최고, 1949년 제주도 성비 82.08%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.
- 2005년 현재 234개 시·군·구 가운데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은 모두 경남에 위치하고 있음.

2. 1925년 이후 시도별 성비 변화 추세

- 경기도와 강원도의 성비는 1955년 각각 107.57%와 134.34%로 가장 높았음.
- 1960년~1985년은 충북과 충남의 성비가 전국 성비보다 높았던 시기임.
- 제주도, 전통적인 여초지역이지만 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1990년 경북의 성비가 100.00%로 나타남.
- 1970년 이후 부산의 성비는 100.00% 미만이었음.
- 인천의 성비는 1990년부터 전국 성비보다 높게 나타남.
- 울산의 성비는 증가, 광주와 대전의 성비는 감소 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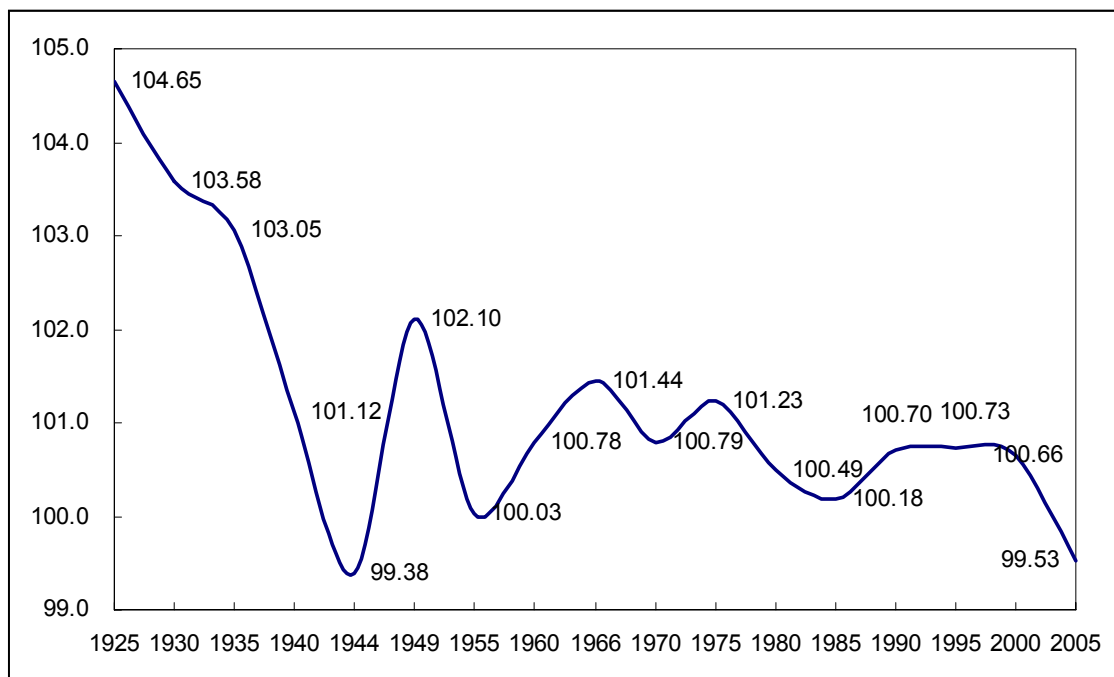
1. 1925년 이후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*

■ 역대 인구총조사 가운데 전국 성비가 99%대를 기록한 것은 1944년과 2005년.

- 1924년 최초로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이후, 1944년과 2005년 조사 결과에서 성비가 각각 99.38%와 99.53%로 나타남(<그림 1> 참고).
- 1924년 당시 성비는 104.65%로 역대 인구총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았음.
- 1924년~1944년 사이에 성비는 급격히 감소하여 1944년 99.38%로 나타남. 이것은 1924년과 비교하여 5.27%p 감소한 것임(<부표 1> 참고).
- 1949년 성비가 일시적으로 102.10%까지 증가하였으나, 1966년과 1975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100.00%대를 유지함.
- 1955년 처음으로 성비가 100.03%를 기록한 이후, 50년 경과한 2005년 99.53%로 감소함.

<그림 1> 1925년 이후 전국 성비 변화

(단위: %)



* 성비는 여성 백명당 남성 수를 의미함($\frac{\text{남성인구}}{\text{여성인구}} \times 100$).

■ 1955년 강원도 성비 134.34%로 역대 최고, 1949년 제주도 성비 82.08%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.

- 총 17회가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 강원도가 총 13회에 걸쳐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(<표 1> 참고).
- 특히 1955년 강원도의 성비는 134.34%는 역대 최고치로 당시 전국 성비보다 34.30%p 높았음. 당시 강원도의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는 각각 857,474명과 638,281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19,19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총 17회가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 제주도와 전남이 각각 9회와 7회에 걸쳐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기록됨.
- 1949년 제주도의 성비는 82.08%로 역대 최저치이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20.02%p 낮았음. 당시 제주도의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는 각각 114,736명과 139,791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,05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<표 1> 1925년 이후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: 시·도

(단위: %, %p)

연도	전국	최고 지역				최저 지역			최고·최저 격차
		강원	경기	대전	울산	전남	경남	제주	
1925	104.65	109.79	-	-	-	101.75	-	-	8.04
1930	103.58	109.41	-	-	-	100.58	-	-	8.83
1935	103.05	107.39	-	-	-	100.12	-	-	7.27
1940	101.12	107.05	-	-	-	-	96.11	-	10.94
1944	99.38	104.02	-	-	-	94.99	-	-	9.03
1949	102.10	106.55	-	-	-	-	-	82.08	24.47
1955	100.03	134.34	-	-	-	93.80	-	-	40.54
1960	100.79	-	107.57	-	-	-	-	87.41	20.16
1966	101.44	104.70	-	-	-	-	-	90.92	13.78
1970	100.79	104.53	-	-	-	-	-	92.13	12.40
1975	101.23	105.35	-	-	-	-	-	93.94	11.41
1980	100.49	104.54	-	-	-	-	-	95.78	8.76
1985	100.18	104.27	-	-	-	-	-	96.17	8.10
1990	100.70	103.06	-	-	-	-	-	97.70	5.36
1995	100.73	-	-	102.19	-	-	-	97.19	5.00
2000	100.66	-	-	-	105.94	98.08	-	-	7.86
2005	99.50	-	-	-	106.10	96.20	-	-	9.90

■ 2005년 현재 234개 시·군·구 가운데 성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은 모두 경남에 위치하고 있음.

- 2005년 현재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거제시(114.83%)로 전국 성비보다 15.30%p 높음(<표 2> 참고).
 - 2005년 현재 거제시의 남성 인구나 여성 인구는 각각 103,373명과 90,025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,348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- 강원도 양구군, 울산 동구, 울산 북구 등도 성비가 110.00% 이상인 지역으로 나타남.
- 2005년 현재 성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의령군(85.08%)으로 전국 성비보다 14.45%p 낮음(<표 2> 참고).
 - 2005년 현재 경남 의령군의 남성 인구나 여성 인구는 각각 12,639명과 14,856명으로 여성이 전체 인구의 54.03%를 차지하고 있음.
 - 이외에 경남 함양군, 합천군, 남해군, 경북 청도군, 영덕군 등의 성비도 85.00% 이하로 나타남.

<표 2> 2005년 성비 상·하위 지역: 시·군·구

(단위: 명, %, %p)

	상위 지역					하위 지역				
	시·군·구명	여성	남성	성비	지역격차	시·군·구명	여성	남성	성비	지역격차
1	경남 거제시	90,025	103,373	114.83	15.30	경남 의령군	14,856	12,639	85.08	-14.45
2	강원 양구군	9,177	10,208	111.23	11.70	경남 함양군	20,026	17,105	85.41	-14.12
3	울산 동구	83,902	93,103	110.97	11.44	경북 청도군	21,263	18,172	85.46	-14.07
4	울산 북구	66,939	73,866	110.35	10.82	경남 합천군	25,642	22,009	85.83	-13.7
5	충북 음성군	39,196	42,761	109.10	9.57	경남 남해군	25,124	21,570	85.85	-13.68
6	강원 정선군	19,655	21,362	108.68	9.15	경북 영덕군	21,757	18,703	85.96	-13.57
7	경기 화성시	135,242	146,882	108.61	9.08	전남 보성군	24,644	21,246	86.21	-13.32
8	강원 태백시	26,489	28,752	108.54	9.01	전남 곡성군	15,854	13,758	86.78	-12.75
9	경기 시흥시	184,591	199,713	108.19	8.66	전남 장흥군	21,390	18,565	86.79	-12.74
10	경북 울릉군	4,023	4,306	107.03	7.50	전북 순창군	14,041	12,209	86.95	-12.58
11	강원 양양군	14,268	15,246	106.85	7.32	전남 강진군	19,541	17,012	87.06	-12.47
12	충남 연기군	38,886	41,503	106.73	7.20	경남 산청군	17,280	15,078	87.26	-12.27
13	강원 인제군	14,743	15,681	106.36	6.83	전북 임실군	13,712	11,970	87.30	-12.23
14	경남 창원시	242,631	256,783	105.83	6.30	전남 구례군	13,167	11,532	87.58	-11.95
15	대전 유성구	107,487	113,719	105.80	6.27	전남 고흥군	38,632	33,946	87.87	-11.66
16	충북 진천군	28,115	29,684	105.58	6.05	전남 진도군	17,044	15,002	88.02	-11.51
17	경북 칠곡군	52,417	55,267	105.44	5.91	경북 의성군	30,013	26,509	88.33	-11.20
18	충남 서산시	69,960	73,732	105.39	5.86	전북 고창군	29,579	26,415	89.30	-10.23
19	경북 구미시	185,978	195,605	105.18	5.65	경남 창녕군	30,298	27,084	89.39	-10.14
20	울산 중구	110,171	115,639	104.96	5.43	전남 해남군	39,001	34,981	89.69	-9.84

주. 지역격차=해당지역 성비-2005년 전국 성비(99.53).

2. 1925년 이후 시도별 성비 변화 추세

■ 경기도와 강원도의 성비는 1955년 각각 107.57%와 134.34%로 가장 높았음.

○ 경기도의 성비는 1955년 107.57%로 최고치를, 1944년 99.78%로 최저치를 기록함 (<그림 2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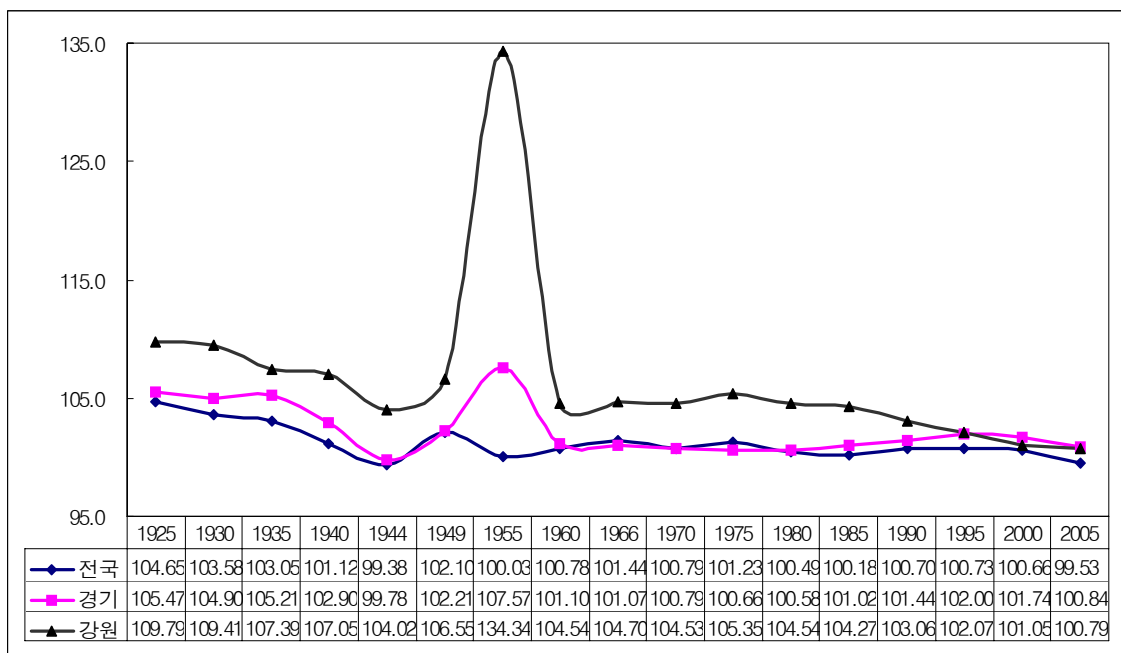
- 경기도의 역대 성비 기록 가운데 전국 성비보다 낮았던 시기는 1966년(101.07%)과 1975년(100.66%)으로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각각 0.37%p, 0.57%p 낮았음.
- 경기도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5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100.84%)는 6.73%p 감소한 것임.

○ 강원도 성비의 최고치와 최저치는 각각 1955년 134.34%와 2005년 100.79%임(<그림 2> 참고).

- 2005년 강원도의 성비는 1955년과 비교하여 33.55%p 감소한 것임.
- 강원도는 역대 인구총조사에서 지역의 성비가 항상 전국 성비를 상회하였으며, 성비가 100.00% 미만으로 하락한 사례가 없는 남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.

<그림 2> 경기도와 강원도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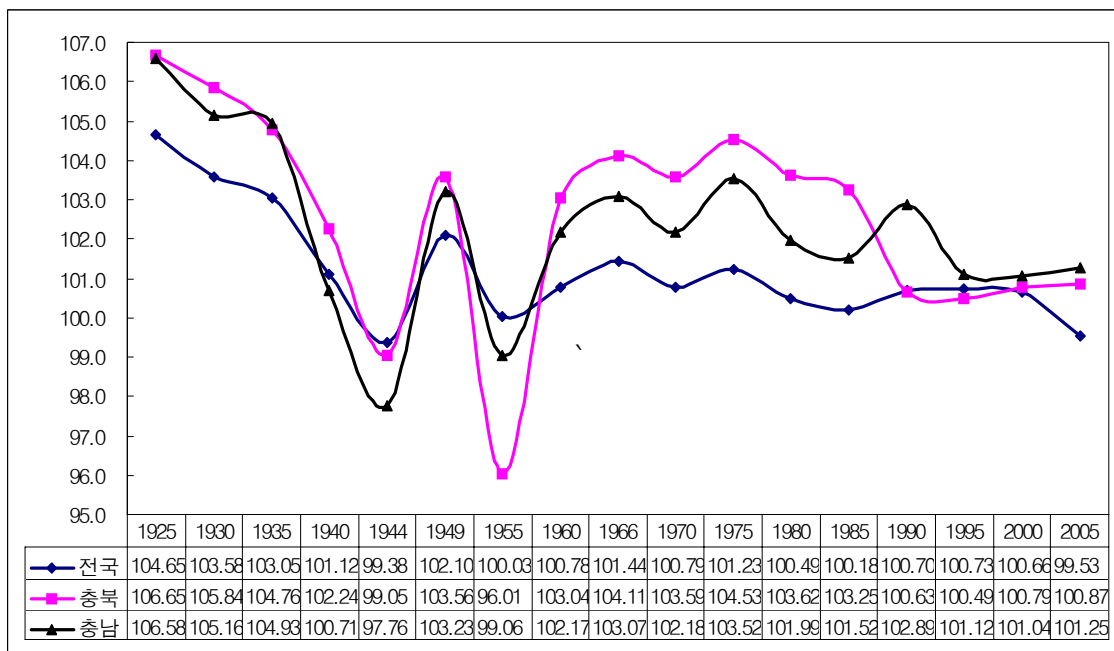


■ 1960년~1985년은 충북과 충남의 성비가 전국 성비보다 높았던 시기임.

- 충북의 성비는 1925년 106.65%로 가장 높았으며, 1955년 96.01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(〈그림 3〉 참고).
 - 충북의 성비가 전국 성비보다 낮았던 시기는 1944년(99.05%), 1955년(96.01%), 1990년(100.63%), 1995년(100.49%)이었으며, 1955년은 당시 전국 성비에 비해 5.02%p 낮은 것임.
 - 충북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2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100.87%)는 5.78%p 감소한 것임.
- 충남의 성비는 1925년 106.58%로 가장 높았으며, 1944년 97.76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(〈그림 3〉 참고).
 - 충남 성비가 전국 성비보다 낮았던 시기는 1940년(100.71%), 1944년(97.76%), 1955년(99.06%)이었으며, 1944년 성비는 당시 전국 성비에 비해 1.62%p 낮은 것임.
 - 충남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2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101.25%)는 5.33%p 감소한 것임.

〈그림 3〉 충북과 충남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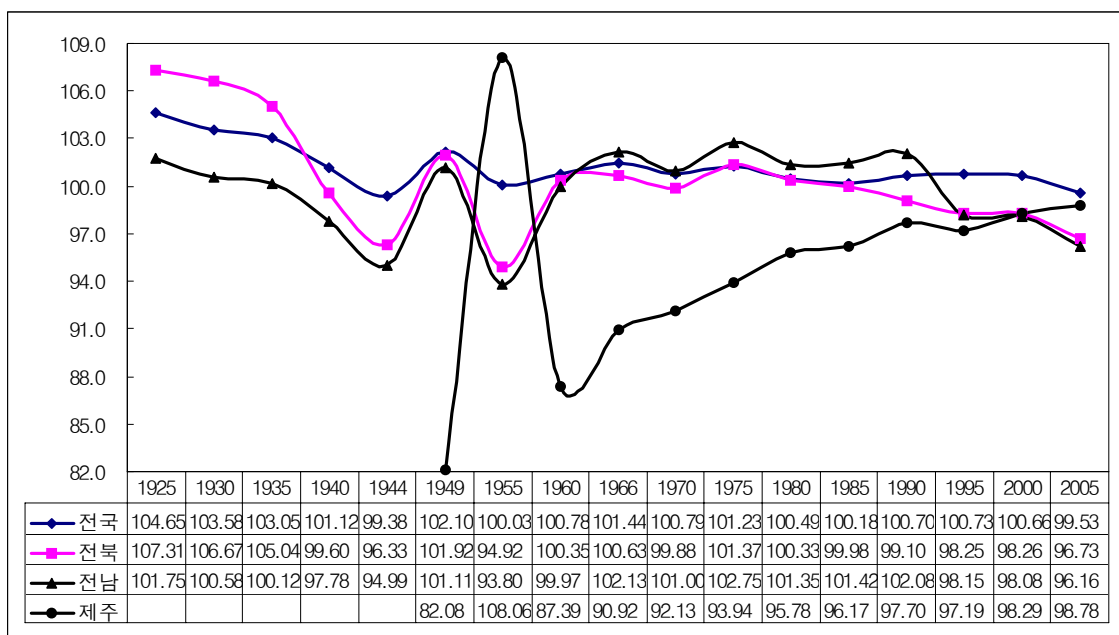


■ 제주도, 전통적인 여초지역이지만 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- 전북의 성비는 1935년까지 전국 성비를 상회하였으나, 이후 전국 성비보다 낮은 특징을 갖고 있음(<그림 4> 참고).
- 전북의 성비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55년(94.92%)으로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5.11%p 낮은 것이었음.
- 전북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25년(107.31%)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96.73%)는 10.58%p 감소한 것임.
- 전남의 성비는 1966년~1990년에는 전국 성비보다 높았지만 1925년~1960년, 1995년~2005년에는 전국 성비보다 낮은 특징을 갖고 있음(<그림 4> 참고).
- 전남의 성비는 1975년 102.75%로 가장 높았고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1.52%p 높은 것임. 또한 1955년 93.80%로 가장 낮았고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6.23%p 낮은 것임.
- 전남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7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96.16%)는 6.59%p 감소한 것임.

<그림 4> 전북, 전남, 제주도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

- 제주도는 전통적인 여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(<그림 4> 참고).
- 제주도의 성비는 1955년 108.06%로 가장 높았고,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8.03%p 높은 것임. 그리고 1949년 82.08%로 성비가 가장 낮았으며,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20.02%p 낮은 것임.
- 1949년과 비교하여 2005년 제주도의 성비는 16.70%p 증가하였음.

■ 1990년 경북의 성비가 100.00%로 나타남.

○ 1990년 경북의 성비는 100.00%를 기록함(<그림 5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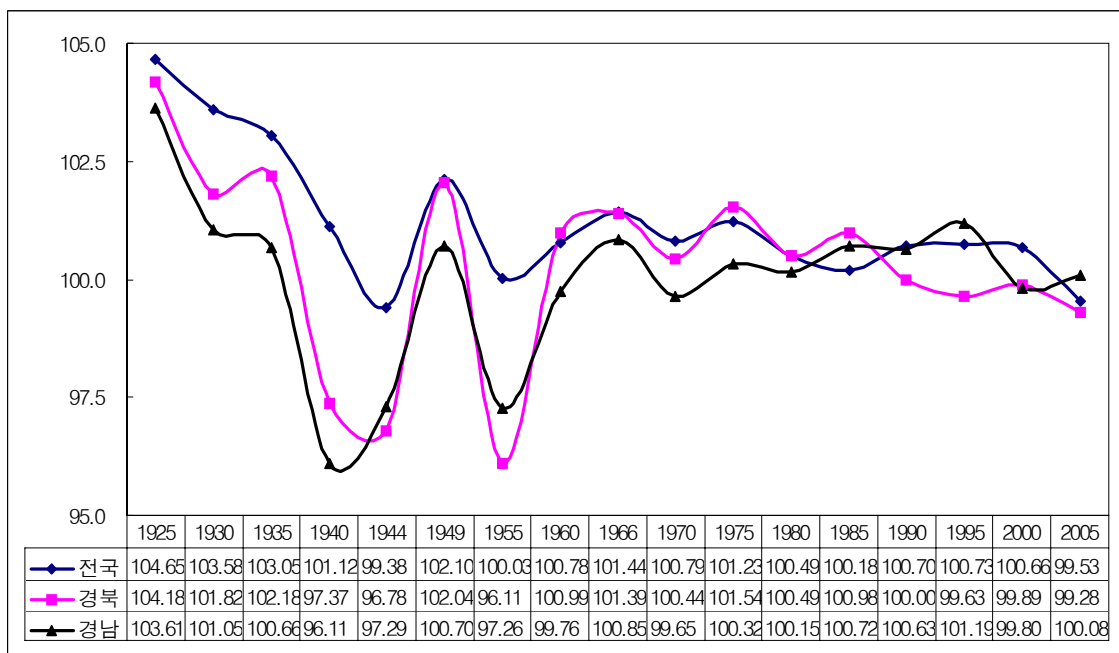
- 경북의 성비는 1925년 104.18%로 가장 높았으나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0.47%p 낮은 것임. 또한 1955년 96.11%로 가장 낮았고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3.92%p 낮은 것임.
- 경북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25년과 2005년 성비(99.28%)는 4.90%p 감소한 것임.

○ 경남의 성비는 1980년까지 전국 성비보다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(<그림 5> 참고).

- 경남의 성비는 1925년 103.61%로 가장 높았으나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1.04%p 낮았음. 또한 1940년 96.11%로 가장 낮았고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6.23%p 낮은 것임.
- 경남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2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100.08%)는 3.53%p 감소한 것임.

<그림 5> 경북과 경남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

■ 1970년 이후 부산의 성비는 100.00% 미만이었음.

○ 1949년, 1990년~2000년을 제외하고 서울의 성비는 100.00% 미만이었음(<그림 6> 참고).

- 서울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49년(105.29%)으로 당시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3.19%p 높은 것임. 그리고 2005년 서울의 성비는 98.21%로 가장 낮으며, 전국 성비와 비교하여 1.32%p 낮은 것임.

- 서울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49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98.21%)는 7.08%p 감소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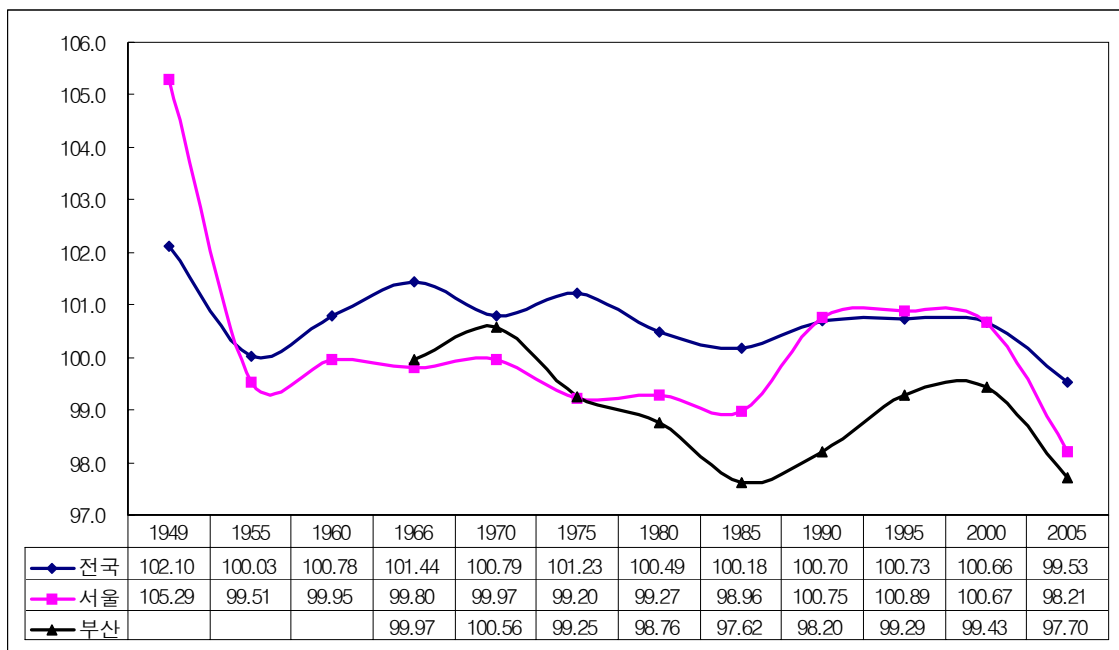
○ 1970년 이후 부산의 성비는 100.00% 미만이었음(<그림 6> 참고).

- 부산의 성비는 1970년 100.56%로 가장 높았으나, 당시 전국 성비 보다 0.23%p 낮았음. 또한 1985년 부산의 성비는 97.62%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2.56%p 낮은 것임.

- 부산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70년에 비해 2005년 성비(97.70%)는 2.86%p 감소한 것임.

<그림 6> 서울과 부산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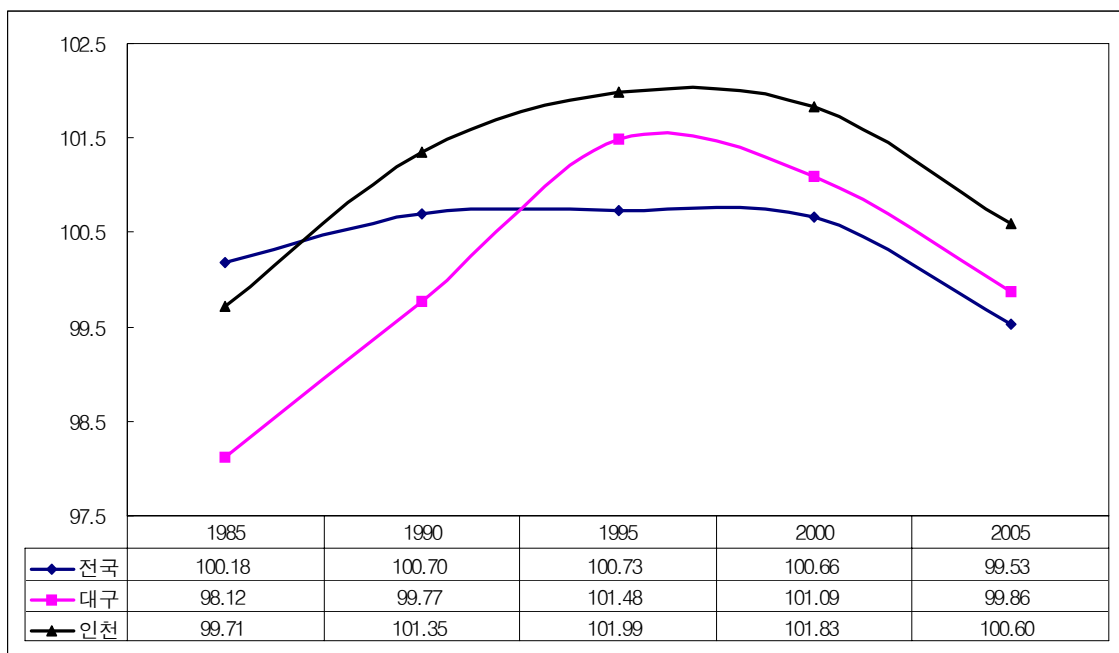


■ 인천의 성비는 1990년부터 전국 성비보다 높게 나타남.

- 1985년~1995년까지 증가했던 대구의 성비는 2000년부터 감소하여, 2005년 90%대로 떨어짐(<그림 7> 참고).
 - 대구의 성비는 1995년 101.48%로 가장 높았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0.75%p 높았음. 그리고 1985년 대구의 성비는 98.12%로 가장 낮았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2.06%p 낮은 것임.
 - 대구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5년에 비해 2005년 성비(99.86%)는 1.62%p 감소한 것임.
- 1985년 100.00%미만이었던 인천의 성비는 1990년부터 100.0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(<그림 7> 참고).
 - 인천의 성비는 1995년 101.99%로 가장 높았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1.26%p 높은 것임. 또한 1985년 인천의 성비는 99.71%로 가장 낮았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0.47%p 낮은 것임.
 - 인천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5년과 비교하여 2005년 성비(100.60%)는 1.39%p 감소하였음.

<그림 7> 대구와 인천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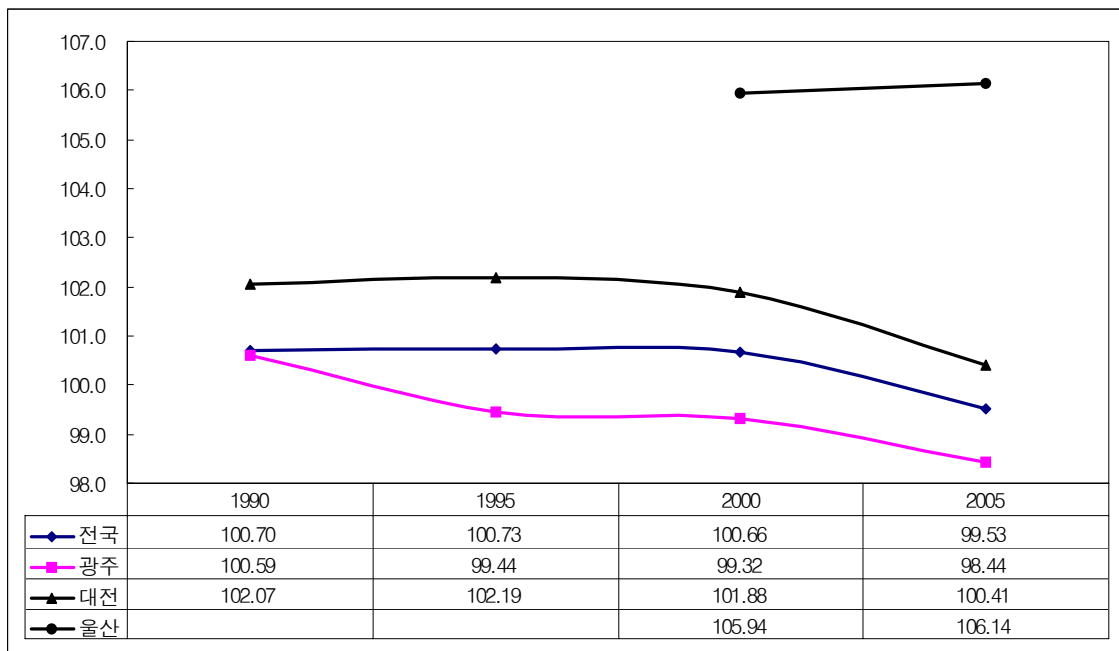


■ 울산의 성비는 증가, 광주와 대전의 성비는 감소 중.

- 1990년 이후 광주의 성비는 감소하고 있음(<그림 8> 참고).
 - 광주의 성비는 1990년 100.59%로 가장 높았으나, 당시 전국 성비보다 0.11%p 낮았음. 그리고 2005년 광주의 성비는 98.44%로 가장 낮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0.99%p 낮은 것임.
 - 광주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0년에 비해 2005년 성비(98.44%)는 2.15%p 감소한 것임.
- 대전, 1990년 이후 성비 감소하고 있으나, 여전히 100.00% 이상임(<그림 8> 참고).
 - 대전의 성비는 1990년 102.27%로 가장 높았으며, 당시 전국 성비보다 1.37%p 높은 것임. 또한 2005년 대전의 성비는 100.41%로 가장 낮으나, 전국 성비보다 1.66%p 높은 것임.
 - 대전의 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0년에 비해 2005년 성비(100.41%)는 1.66%p 감소한 것임.
- 울산은 2000년과 2005년 전국에서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, 당시 전국 성비보다 각각 5.28%p, 6.61%p 높게 나타났으며, 2000년과 2005년 사이 울산의 성비는 1.80%p 증가하였음.

<그림 8> 광주, 대전, 울산의 성비 변화

(단위: %)



3. 부록

〈부표 1〉 1925년 이후 전국 성비 변화

(단위: 명, %, %p)

연도	계	여성	남성	성비	증감
1925	19,020,030	9,293,880	9,726,150	104.65	-
1930	20,438,108	10,039,219	10,398,889	103.58	-1.07
1935	22,208,102	10,937,097	11,271,005	103.05	-1.60
1940	23,547,465	11,708,170	11,839,295	101.12	-3.53
1944	25,120,174	12,599,001	12,521,173	99.38	-5.27
1949	20,166,756	9,978,518	10,188,238	102.10	-2.55
1955	10,752,973	10,749,413	10,752,973	100.03	-4.62
1960	24,954,290	12,428,833	12,525,457	100.78	-3.87
1966	29,159,640	14,475,493	14,684,147	101.44	-3.21
1970	31,435,252	15,655,637	15,779,615	100.79	-3.86
1975	34,678,972	17,233,726	17,445,246	101.23	-3.42
1980	37,406,815	18,657,509	18,749,306	100.49	-4.16
1985	40,419,652	20,192,088	20,227,564	100.18	-4.47
1990	43,390,374	21,619,455	21,770,919	100.70	-3.95
1995	44,553,710	22,196,358	22,357,352	100.73	-3.92
2000	45,985,289	22,917,108	23,068,181	100.66	-3.99
2005	47,041,434	23,575,784	23,465,650	99.53	-5.12

주. 증감=해당 년도 성비-1925년 성비.

〈부표 2〉 1925년 이후 지역별 성비

(단위: %)

연도	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황해도	평북	평남	함북	함남
1925	104.65	-	-	-	-	-	-	-	105.47	109.79	106.65	106.58	107.31	101.75	104.18	103.61	-	102.41	104.01	101.91	104.25	105.64
1930	103.58	-	-	-	-	-	-	-	104.90	109.41	105.84	105.16	106.67	100.58	101.82	101.05	-	101.45	102.75	100.81	106.11	105.74
1935	103.05	-	-	-	-	-	-	-	105.21	107.39	104.76	104.93	105.04	100.12	102.18	100.66	-	101.69	101.76	100.13	105.42	104.54
1940	101.12	-	-	-	-	-	-	-	102.90	107.05	102.24	100.71	99.60	97.78	97.37	96.11	-	100.46	100.11	101.13	113.29	105.44
1944	99.38	-	-	-	-	-	-	-	99.78	104.02	99.05	97.76	96.33	94.99	96.78	97.29	-	99.45	100.38	101.40	108.11	103.76
1949	102.10	105.29	-	-	-	-	-	-	102.21	106.55	103.56	103.23	101.92	101.11	102.04	100.70	82.08	-	-	-	-	-
1955	100.03	99.51	-	-	-	-	-	-	107.57	134.34	96.01	99.06	94.92	93.80	96.11	97.26	108.06	-	-	-	-	-
1960	100.78	99.95	-	-	-	-	-	-	101.10	104.54	103.04	102.17	100.35	99.97	100.99	99.76	87.39	-	-	-	-	-
1966	101.44	99.80	99.97	-	-	-	-	-	101.07	104.70	104.11	103.07	100.63	102.13	101.39	100.85	90.92	-	-	-	-	-
1970	100.79	99.97	100.56	-	-	-	-	-	100.79	104.53	103.59	102.18	99.88	101.00	100.44	99.65	92.13	-	-	-	-	-
1975	101.23	99.20	99.25	-	-	-	-	-	100.66	105.35	104.53	103.52	101.37	102.75	101.54	100.32	93.94	-	-	-	-	-
1980	100.49	99.27	98.76	-	-	-	-	-	100.58	104.54	103.62	101.99	100.33	101.35	100.49	100.15	95.78	-	-	-	-	-
1985	100.18	98.96	97.62	98.12	99.71	-	-	-	101.02	104.27	103.25	101.52	99.98	101.42	100.98	100.72	96.17	-	-	-	-	-
1990	100.70	100.75	98.20	99.77	101.35	100.59	102.07	-	101.44	103.06	100.63	102.89	99.10	102.08	100.00	100.63	97.70	-	-	-	-	-
1995	100.73	100.89	99.29	101.48	101.99	99.44	102.19	-	102.00	102.07	100.49	101.12	98.25	98.15	99.63	101.19	97.19	-	-	-	-	-
2000	100.66	100.67	99.43	101.09	101.83	99.32	101.88	105.94	101.74	101.05	100.79	101.04	98.26	98.08	99.89	99.80	98.29	-	-	-	-	-
2005	99.53	98.21	97.70	99.86	100.60	98.44	100.41	106.14	100.84	100.79	100.87	101.25	96.73	96.16	99.28	100.08	98.78	-	-	-	-	-